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Korea

2021
MARCH
vol. 297

03



발행일 2021년 3월 1일

발행인 김동만

편집인 김선영

등록번호 울산증,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류경민

글 김민정, 김혜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591-1

전화 051.636.1210

www.ggad.co.kr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생각하다

04 : ON HRD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의 핵심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06 : 한눈에 HRD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통계

08 : 공들인 인터뷰

2020년 NCS기업활용컨설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기업
(주)에타

12 : HRD Focus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당신의 경력개발경로를 추천한다

② 자리를 찾다

14 : 명장의 수선실

우리산업의 뿌리기술 '도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든다

18 : 꿈지락 꿈지락

나를 바꾼 사건

20 : HRD 투게더

신나는 실내스포츠 한판으로
업무 스트레스 타파!
노무법무지원부 미니볼링 도전

24 : 상생과 협력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영그룹컴퍼니 유다영 대표

③ 스스로 행하다

28 : 여행 사랑피

다시 찾아온 봄

30 : 트렌디한 자격

바이오 테크놀로지,
재난에 맞서는 미래 기술

34 :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

우리, 책 읽을까요?

36 : 성공! 해외취업

구글과 말레이시아 취업이
나에게 준 선물,
좋은 사람들과 커리어

④ 하나로 모으다

38 : 직통 직방

'백신 여권'으로 자유로운
여행 가능해질까

40 : 청렴학 칼럼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
투명한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42 : HRD NEWS

44 : 독자이야기



국가가 인정하는
직무능력의 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는
체계화된 직무능력 개발의
지름길입니다.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의 핵심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CS를 기업에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NCS 기업활용컨설팅 사업에 참여해보세요!

💬 사업소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NCS에 기반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의 직무분석, 역량 모델링 도출, 맞춤형 채용 평가도구,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제공하는 사업

💬 사업목표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 세부내용

- ❶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 ❷ 지원수준 : 신청기업의 전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재 설계, NCS기반 채용 프로세스,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 ❸ 사업 세부유형
 - 1) 기본형 : 기업의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직무 재설계 컨설팅 및 컨설팅 활용 교육
 - 2) 확장형 :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기업의 역량모델 도출 및 채용·훈련 컨설팅
 - 3) 기본형+확장형 : 기본형, 확장형에 제시된 모든 내용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량 백과사전, 인재양성 지침서, 직무능력중심 채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입니다.

프로세스

사업공고 ▶ 컨설팅 운영기관 선정 및 착수 ▶ 컨설팅 실시 및 운영기관 지원 ▶ 컨설팅 결과보고 ▶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참여방법

NCS누리집(www.ncs.go.kr) 접속 ▶ [기업활용] 클릭 ▶ [컨설팅신청]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기본 신청정보 작성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PC 저장 ▶ 파일첨부 ▶ [등록] 클릭 및 신청 완료

NCS기업활용컨설팅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채용 절차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직무능력 기반의 과학적 채용 방법론과 공정한 채용 절차를 구축하여 기업(직무)에 적합한 인재 확보 가능

근로자의 직무수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직무 분석과 직무별 필요역량을 규명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축·운영으로 근로자 역량 함양 가능

근로자의 직무 및 조직 몰입도 강화로 효과적 인력관리를 실현합니다.

직무에 적합한 인력배치로 근로자 직무몰입도·조직일체감이 향상되어 이직률 감소로 연계되는 등 인적자원관리의 효과성 제고

일·교육·훈련-자격 연계의 핵심 기반

국 | 가 | 직 | 무 | 능 | 력 | 표 | 준

📌 NCS 개발·개선 현황

2013년 선체정비 등 240개 직무 개발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NCS 직무 **총 1,039개**

📌 NCS 기업활동 컨설팅 참여기업 현황(누적)

- 참여기업수 : **5,334개**
- 참여운영기관수 : 180개(ISC 66개, RSC 26개, 기타 88개, 중복 포함)

*ISC :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RSC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2020년 NCS 기업활동 컨설팅 업종별 참여현황 : 701개



사업관리



보험·의료



장비·재료



재료



식품·음식

경영·
회계·사마사회
복지·공고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화학·바이오



인쇄·목재·
가구·공예



법률·경찰·
소방·교도·국방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음식서비스



레isure·의복



환경·
에너지·안전



교육·자연·
사회과학



운전·운송



건설



전기·전자



놀이·여暇



금융·보험



영업·판매



기계



정보통신

NCS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 조사대상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기업체
- 조사기간 : '20. 7. 8.~'20. 10. 7. 총 3개월
- NCS 인식도 : 잘 알고 있다(**13.5%**), 조금 알고 있다(**52.8%**), 전혀 모름(33.7%)

임직원의 NCS 경험분야 TOP5



기업에서 NCS 활용분야 TOP5

- 1 회사 내 직무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 2 회사 내 공통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용
- 3 직원 배치 시(승진, 직무변경 등) 활용
- 4 채용 시 지원자 업무 적합성 평가 도구로 활용
- 5 채용 시 지원자 직무능력 평가 도구로 활용

기업에서 NCS 사용효과 TOP5

- 1 직무능력 향상
- 2 인사체계 신뢰도 향상
- 3 사내 직무분석 편의성 개선
- 4 직무 관련 학습의지 향상
- 5 직무만족도 향상

NCS기업활용컨설팅으로 기업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다

(주)에타



Interview

Interview

2003년 창업한 (주)에타는 정수기 부품을 제작·생산하는 업체이다. 지금이야 정수기 부품 업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술과 인재를 보유한 회사로 자리 잡았지만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주)에타는 중소기업이 가진 여러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시기에 (주)에타를 구원한 것이 바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었다. NCS가 (주)에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정수기 부품 업계에서의 최강자

(주)에타는 국내 정수기 부품 전문업체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이다. 냉온정수기 냉각기, 정수기·연수기 필터, 순간히터, 얼음 Evaporator 등 (주)에타에서 만들어 내는 부품들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정수기업체들의 무한 신뢰를 받으면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 내는 효자상품들이다.

(주)에타를 방문한 2월은 1년 중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이다. 정수기 판매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여름에 맞춰 부품 주문이 많을 때이기 때문이다. 총 1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공장과 사무실에서 바빠 오가며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은 외부 방문객들에게 중견기업의 단단함을 여지없이 과시하고 있었다.

(주)에타는 NCS기업활용컨설팅으로 다소 변화된 모습이었다. 이전에는 (주)에타 역시 중소기업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겪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으레 그렇듯 우리 회사에서도 인력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에 익숙해질 만하면 퇴사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러다 보니 숙련 기술자들을 보유하기가 어려웠어요. 시스템이 없으니 교육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2011년도에 입사해 연구개발 부서



(왼쪽부터) 이민형 주임, 이정연 차장, 이종선 과장, 김병권 차장

에 6년을 근무한 후 경영지원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연 부장의 말이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주)에타는 인력관리 교육에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에 일학습병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을 하려고 보니 NCS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했다. 이 부장은 때마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NCS기업활용컨설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일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급히 교육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단발성으로 프린트물을 나눠주는 식이었죠. 그런데 NCS기업활용컨설팅을 받으면서 NCS의 장점을 파악해 학습모듈, 직무 등 잘 짜인 시스템으로 1년 계획을 짤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된 교육이 가능해진 거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변화의 시작

이정연 부장은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해 길을 찾았노라고 고백했다.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NCS를 도입하면서 우리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이 먼저 필요한지에 역점을 두어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인사, 생산, 품질 담당자들이 컨설팅의 면담과 설문을 통하여 (주)에타에서는 품질 및 구매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했고, 품질교육과 구매 관련 교육에 부족한 부분을 깊이 있게 진단체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NCS는 준비됐지만, 직원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왜 굳이 이것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장시간 앉아서 교육을 듣고 필기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설득해가며 지원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지로 시킬 수는 없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할 시간에 공부도 하고, 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 개인역량이 향상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너도, 나도 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들을 만하다’, ‘너도 해봐’라는 선배들의 말도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다. ㈜에타에서는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채용분야에 직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입사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했고, 기존 입사자에 대해서는 저마다 가진 역량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개인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꿈꾸다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해서 무엇보다 직원들 레벨에 맞게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죠.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세분되어 있는 NCS 직무를 직원들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꾸준히 교육했습니다.”

(주)에타가 본격적으로 NCS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올해로 5년 차가 됐다. 그 시간 동안 (주)에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속적인 NCS 교육을 받으면서 평사원에서 반장, 조장까지 승진한 직원들을 보면 업무현장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갖추게 됐고, 다소 수동적이었던 직원들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민형

주임(경영지원팀) 역시 변화를 겪은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주)에타에 입사한 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파트가 주업무였는데 NCS 커리큘럼으로 OA와 관련한 사무 교육을 받았습니 다. 사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좀 귀찮은 마음이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또 중소기업에서 하는 신입사원 교육이라 좀 허술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접해본 NCS교육은 매우 체계적이었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사를 했던 이민형 주임은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업무에서의 실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나 NCS직무 교육을 받으면서 실행에 자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한다.

“다른 부서와 협업할 때 말은 부분을 빨리 처리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자신감이 붙고 업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NCS기업활용컨설팅과 그에 따른 NCS 직무교육은 (주)에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결과 (주)에타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안에서 개인과 회사가 함께 성장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NCS 기업활용컨설팅과 교육으로 새롭게 비상할 (주)에타. 그 맑고 순도 높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COMPANY INFORMATION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한 목표

개인별 직무수행역량을 진단하고, 능력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기르고자 했다. 컨설팅 기법을 통해 인사/HR 담당자의 자체 수행능력을 끌어 올리고자 했다.

NCS기업활용컨설팅을 통한 훈련과정 수립

▪ 인사관리 실무과정 (3개월, Level 5)

인력채용, 임금관리, 핵심인재관리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실무 능력 함양



*전공교과 외 NCS 소양교과(대인관계능력) : 8시간

▪ 품질관리 초급과정 (4개월, Level 2~Level 3)

기계품질 출하 관리, 기계 검사·측정기기를 관리하며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실무 능력 함양



*전공교과 외 NCS 소양교과(문제해결능력) : 8시간

▪ 구매자재관리 실무과정 (4개월, Level 3~Leve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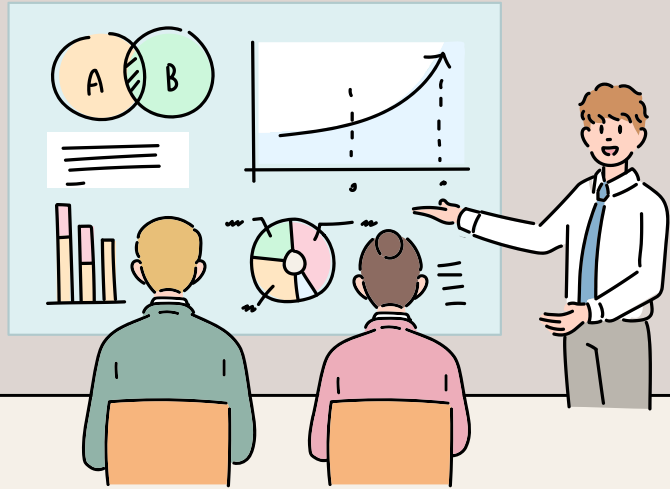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입출고 및 창고 관리와 적정한 가격, 품질, 납기를 위해 자재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실무 능력 함양



*전공교과 외 NCS 소양교과(수리능력) : 8시간

국가직무능력표준 빅데이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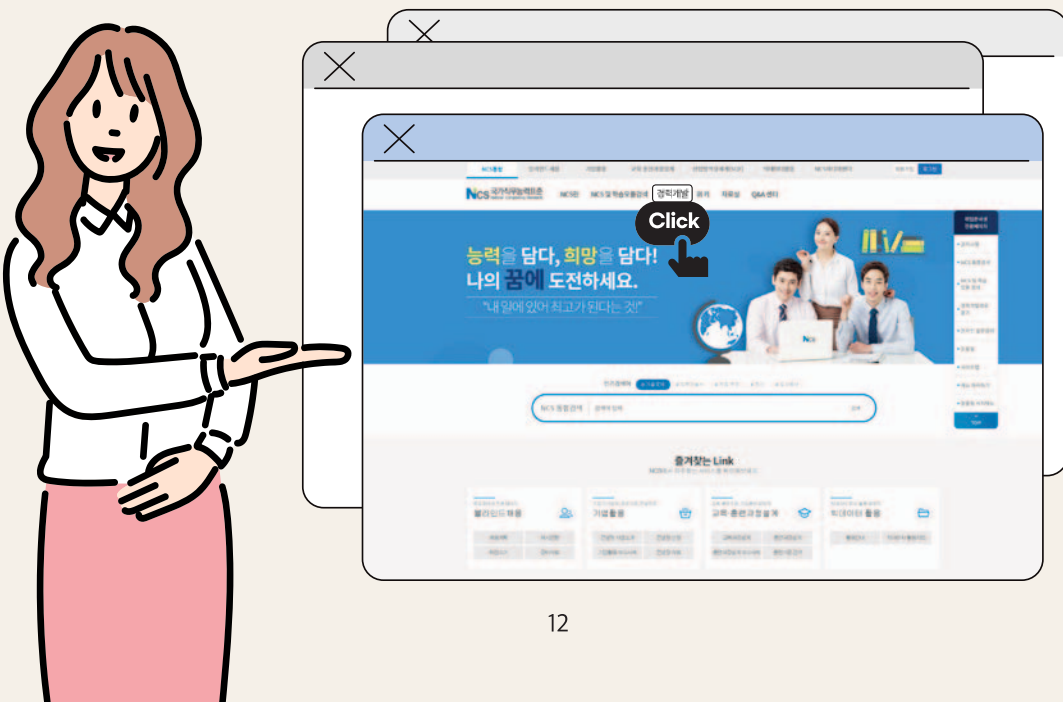
당신의 경력개발 경로를 추천한다



▶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 서비스’ 시작

공단이 2월 1일(월)부터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를 시작했다.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는 개인이 이수한 교육·훈련·자격·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입력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무중심 경력개발경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www.ncs.go.kr) 마이페이지의 <통합직무능력포트폴리오>에서 이용할 수 있다.



NCS 빅데이터 개선 사업 수행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NCS 빅데이터 개선 사업을 수행했다. 에이치알디넷(www.hrd.go.kr), 씨큐넷(www.c.q-net.or.kr),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국가 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 기반으로 재설계했다. 이 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STEP 1

NCS 홈페이지(www.ncs.go.kr)
접속 후 로그인

STEP 2

마이페이지 - 통합 직무능력 포트폴리오
클릭/ 등록 및 수정 버튼 클릭

STEP 3

교육사항, 훈련사항, 자격사항,
경험·경력사항 입력/ 저장 버튼 클릭
뒤로 버튼 클릭

STEP 4

추천 포트폴리오 확인

공론의 장 개설, 누리집 디자인 변경, 취업준비생 전용 페이지 신설 등으로 사용자 편의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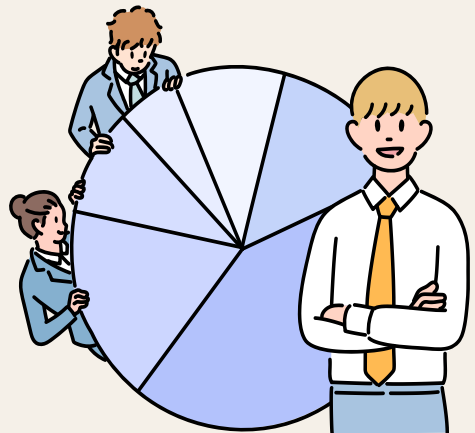
공단은 직무능력기반 개인별 경력개발 추천서비스 외에도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다.

첫째, NCS위키에 댓글 기능을 추가했다. 공론의 장은 NCS위키에 접수된 의견 중 일부 의견을 공개의 제로 설정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둘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누리집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했다.

셋째,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정확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채용 정보제공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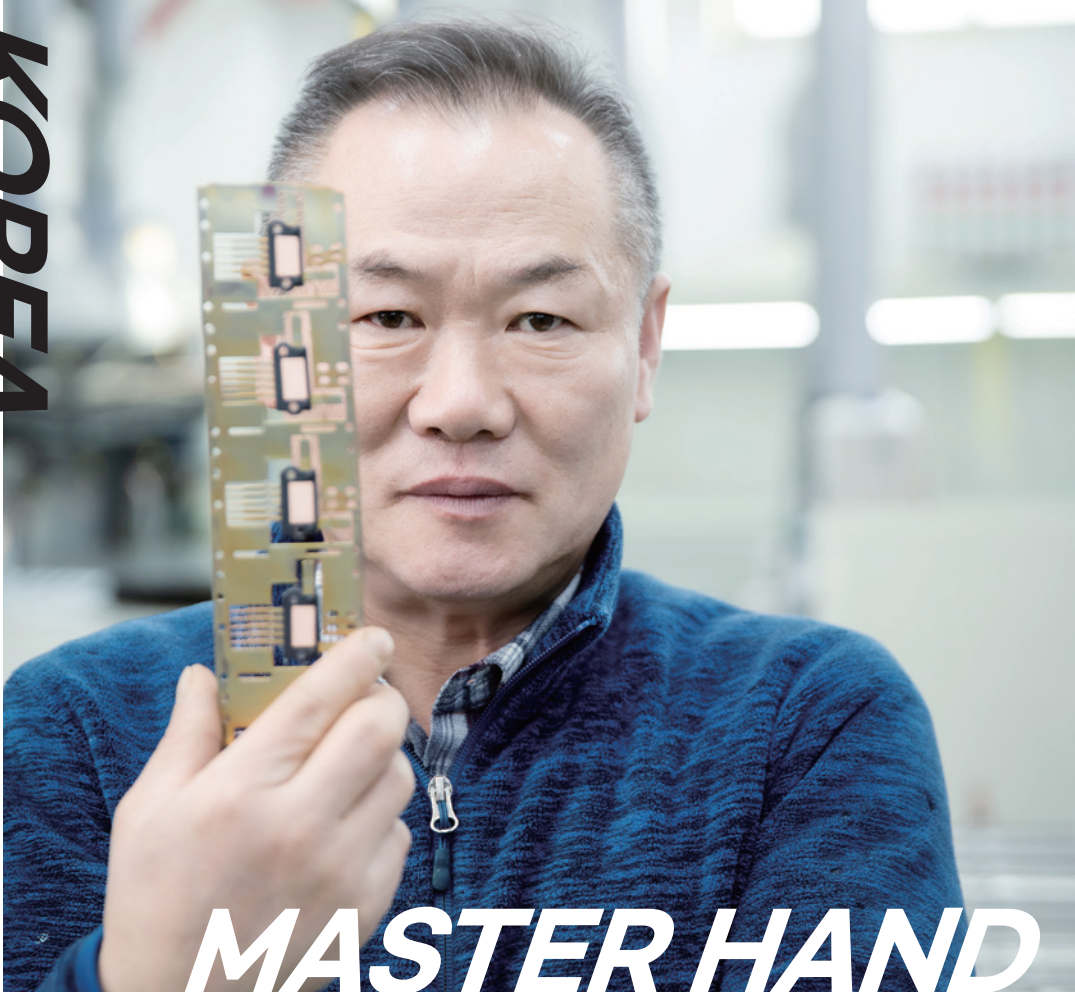
이번 서비스는 국민 개인별 경력개발경로를 설정하고, 타인의 경력개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걸맞은 고도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적

자리를 찾다 / 명장의 수선실

KOREA



MASTER HAND

우리산업의
뿌리기술 ‘도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다**

대한민국 명장
(주)현대도금 윤희탁 대표

자동차 부품, 핸드폰 부품, 가전제품, 귀걸이, 핸드백 장식까지 도금은 우리 산업과 일상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기술이다. (주)현대도금의 윤희탁 대표는 44년이라는 세월을 금속재료 표면처리 분야에 몸담아 온 입지적인 인물로 2020년 대한민국 명장 호칭을 받았다. 명장이라는 명예를 쥐고 표면처리 업계에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된 그를 만났다.

운명 혹은 우연, 도금을 만나다

도금은 그에게 운명이자 우연이었다. 어려웠던 가정형편에 중학교 학비를 못 내 매일 선생님께 불러가던 시절, 소년은 결국 홀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새벽에 청량리역에 도착한 그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에게 걸려들었고 해장국 한 그릇을 얻어먹은 뒤 그대로 도금공장으로 이끌려 갔다.

중학교 1학년 중퇴가 그의 공식학력이지만 사실 윤 명장은 제법 똘똘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손재주도 좋았고 초등학교 재학시절에는 반장도 도맡아 했다. 당시 그의 꿈은 “목장주

인”. 담임선생님은 반장씩이나 돼서 대통령이나 장군이 돼야지 목장주인이 뭐냐고 핀잔을 줬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키우고 만들고 이루는 성취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소년은 15살 나이에도 공장 기술자들 눈에 들 만큼 일을 잘했다. 책임감도 있었고 근성도 있었다. 도금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기술자들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연탄불로 도금욕 온도를 맞춰 놓는 게 중요했다. 소년은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 일부러 물을 잔뜩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 한 번씩 깰 때마다 연탄불을 갈았고 일하는 내내 단 한 번도 연탄불

을 꺼뜨리지 않았다.

성실했던 그가 공장을 옮긴 건 사수 때문이었다. 자신과 손발이 잘 맞는 조수를 데리고 공장을 옮겨 다니는 게 당시 관례였던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에서도 그는 비로소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포니 범퍼를 도금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내용은 범퍼를 도장했고, 그 외에는 수출품만 도금하던 때였어요. 자동차 범퍼를 도금하면서 비로소 도금에 본격적으로 흥미를 느끼게 됐어요. 그때가 19~20살 즈음이었지요.”



EXPERT

약력

- 2000 ㈜현대도금 설립
- 2009 제17회 생산기반기술경기대회 대상
- 2016 제24회 전국표면처리기술경기대회 금상
- 2016 표면처리 기능장 획득
- 2017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 2018 기능한국인(142호) 선정
- 2018 평창올림픽 금메달 제작
- 2020 대한민국 명장(표면처리) 선정

오직 기술과 품질로 대결하다

현대산업에서 도금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공정이다. 철을 도금하지 않고 그냥 두면 녹이 쏜다. 전자부품은 전기가 잘 통해야 하니 금·은·동 도금이 필수다. 항공기 엔진에 표면처리를 하지 않으면 금세 부식되고 오래 날지 못한다. 수명을 늘리고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도금 표면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000년,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차리게 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름을 ‘㈜현대도금’이라고 지었다. 포니 범퍼를 도금했을 때의 자부심, 자기 일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을 기념하는 이름이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기술은 진화한다. 도금 표면처리 기술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철에다 도금했지만 지금은 신소재가 쏟아져 나온다. 당연히 도금기술도 달라져야 한다. 니즈는 다양해지고 더 까다로워졌다. 윤희탁 명장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이유다.

(주)현대도금은 대형 설비를 갖추고 대량생산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도금작업이 필요할 경우 각 기업이나 연구소, 정부 기관 등에서 가장 먼저 찾는 회사 중 하나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주)현대도금에는 영업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거래처에 일을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처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고 그에 합당한 가치를 얻어왔을 뿐이죠.”

그의 말은 도금기술에 대한 자부심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명성은 그렇게 국내를 넘어 해외로 뻗어갔다.

QUALITY



지식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 살 것인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2010년 일본 T사에서 전자부품에 사용되는 페라이트저항 부품 생산을 의뢰했다. 국내외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2시간 30분씩 작업하던 도금공정이었다. 그런데 윤희탁 명장이 그 공정을 12분으로 줄였다. 믿기지 않는 혁신이었다.

“1년 몇 개월을 연구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집에서 겨울복장으로 나왔는데 실험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밖에 나오니 그새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하하.”

그의 도금기술은 평창올림픽에서도 빛을 발했다. IOC 규정에 맞춘 금메달 도금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임에도 그는 6g의 금을 올리면서 메달 전체에 동일한 컬러와 광택을 내는 데 성공했다. 기술과 관련한 그의 철학은 하나이다.

“넘지 못한다고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넘지 못하면 부수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평생 그 신조로 살았습니다.”

명장이 된 지금 그는 막중하지만, 행복한 사명을 갖게 됐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후진들에게 물려 주고 싶다는 것이다. 윤 명장은 이를 위해 일학습병행을

금속재료 표면처리



장화

습식도금을 하는 우리 회사 공장에는 늘 물이 있다. 장화는 필수다.



연구노트

메모하는 습관은 연구개발의 기록적 가치를 보존하는 일. 지금까지도 이 오래된 노트를 리뷰한다.



걸이개

도금제품을 이곳에 걸어서 약품통에 입수시킨다.



메커트로닉스 부품 제조 틀

프랑스 전장 그룹에서 부품을 의뢰했을 때 썼던 상징적인 샘플 통이다.

도입했고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직접 참여해 노하우를 익혔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학생들과 직원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윤희탁 명장에게 “도금 표면처리 직종은 3D 업종인가?” 문자 그가 반문한다.

“‘지식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 살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의 꼭짓점에 오를 수 없어요. 하지만 가치는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지

요. 금속재료 표면처리 직종은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堂堂한 업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날까지 현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

인터뷰 내내 그는 시종일관 명쾌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도금기술 명장이 갖는 명예로부터 비롯된 것일 터였다. 윤희탁 명장이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도금 표면처리 기술. 그 빛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나를 바꾼 사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기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고졸 출신의 현장 사원입니다. 굳이 고졸이라는 학력을 언급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경력을 쌓는다고 한들 그것이 사회에서 결코 동등하지 않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자격증은 학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기이자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0년도 국가자격취득 수기를 전합니다.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전합니다.

떠맡은 안전관리 업무

약 18년 전 현장으로 입사하여 Pump, Fan, Motor류 등의 설비 유지관리·보수와 설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업무 지식 습득과 작업 역량을 강화하던 중 감독자의 지시로 안전관리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기업에서 생산 우선, 설비 가동률 향상 등 ‘빨리 빨리’ 문화와 함께 이익 추구가 앞섰기에 안전에는 다소 소홀했습니다.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도 작업하느냐?’라는 식으로 나무라기 일쑤였습니다. 35% 염산 탱크의 설비가 고장났을 때, 다들 보호구 착용 하나 없이 맨손으로 염산에 손을 담그고, 설비 고장을 빠르게 조치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안전을 챙기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되어 그런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꾼 두 가지 사건

그러던 어느 날, 두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동기 중 한 명이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산 설비 가동 정지 후 고장 부품의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그 사실을 모르던 동료가 설비를 가동시켜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이제 의수가 대신하고 있고, 본인도 그날의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직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산업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이후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친한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전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나를 가로막은 전문성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문성에 전혀 차이가 없는데, 현장에 와서 지적하는 게 귀찮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안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꼭 전문성을 증명하겠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국가자격증이었습니다. 가스, 소방, 산업안전, 건설, 산업위생, 인간공학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자격이 있었지만, 그중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을 다루는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응시자격을 확인해보니 고졸인 저도 경력을 통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동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꾸준히 반복한 덕분에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실기시험에도 곧바로 도전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점수로 불합격했습니다. 학습 범위가 광범위하고 숙지할 내용이 많은데,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 방법 검색 중 목차 학습법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차를 보면 단원에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로 학습했습니다.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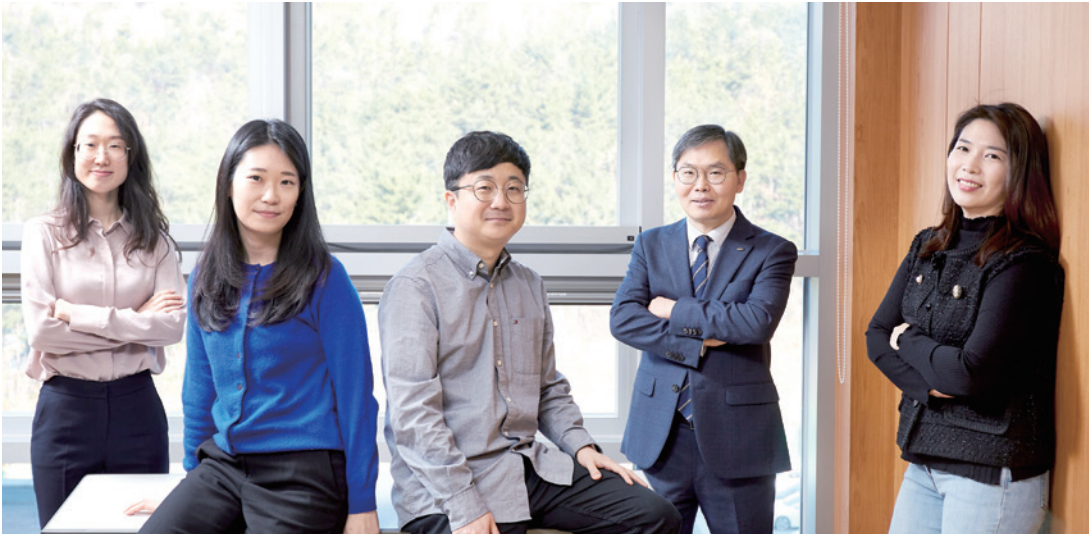
처음 맛본 달콤한 열매로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내친 김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이후 더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증에도 도전하여 위험물기능장과 가스기능장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마저 학습에 활용하고, 식사시간에도 암기한 내용을 되새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이후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 자격증 취득 이후 달라진 점

국가자격증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작업자들은 제가 요청하는 정당한 안전 개선 요구를 전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타당한 근거에 의한 요청을 하니 반박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높게 사준 덕분에 법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국가에 등록되었고, 현장을 떠나 사무실에서 사무직과 동등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도 국가자격증 취득을 권장하여 그중 두 명이 기능장 자격증을, 세 분이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최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자격증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차별 없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국가자격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에게 주는 국가 공인 증서입니다. 이 국가자격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전문성을 향상하여 취업, 승진, 포상 등 모든 분야에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실내스포츠 한판으로

업무 스트레스 타파!

노무법무지원부 미니볼링 도전

공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전문지식으로 대응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내는 노무법무지원부. 업무 특성상 늘 갈등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회의실 한편에 간이 볼링경기장이 차려졌다. 오랜만의 스포츠 활동에 짜뻬함도 잠시, 경기에 몰두하며 겨울 한파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날린 노무법무지원부의 경기현장을 담았다.

People



(왼쪽부터) 김혜연 대리, 이은정 노무사, 한택동 차장,
신길식 부장, 이화윤 과장

미니볼링 경기 활용법

실내에서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간이 미니볼링. 팀을 나누어 진행하면 더 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운영방식과 득점 기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정합니다. → 스트라이크 시, 보너스 투구 기회나 가산점을 주면 더욱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니볼링 경기를 통한 HRD



회복력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누가 스트라이크 할까?’ 볼링경기를 통한 소통 Up!

평소 차분하고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던 노무법무지원부의 분위기가 오늘만큼은 잔뜩 들떠 상기되어있다. 회의실에 들어서며 미리 준비해 둔 간이 볼링경기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늘 치러질 경기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편 가르기에 나선 모습에서 활기가 넘친다. 오늘 경기에 참여할 인원은 신길식 부장과 한택동 차장, 이화윤 과장, 이은정 노무사, 김혜연 대리까지 총 다섯 명. 손바닥 뒤집기로 팀을 나누고, 팀명까지 정하고 나니 어느새 회의실은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이날 경기는 끝날 때까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적 반전 요소를 더하기 위해 스트라이크 시 보너스점수 5점이라는 규칙을 추가해 진행했다. 대결을 벌일 팀은 신길식 부장과 이화윤 과장, 김혜연 대리가 속한 ‘신’팀(신길식 부장 선두)과 한택동 차장, 이은정 노무사가 속한 ‘한’팀(한택동 차장 선두). 수적으로는 열세하지만 질 수 없다는 듯 한택동 차장이 먼저 파란 볼을 집었다. 평소 유머러스한 이미지답게 카메라를 향해 한껏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 동료들의 웃음이 터져 나온다. 결과는 스트라이크! 같은 편인 이은정 노무사는 파란 볼 대신 빨간 볼을 선택했다. 파란색 니트를 입었으니 파란 볼을 들면 사진에 잘 안 나올 거라는 재치 넘치는 이유가 인상적이다.

팀원이 한 명 더 많은 ‘신’팀은 리더인 신길식 부장이 스타트를 끊었다. 아쉽게도 스트라이크는 놓쳤지만, 전문가 못지않았던 포즈만큼은 이날의 베스트! 한편 공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날려버리며 가장 막강한 에너지를 보여준 이화윤 과장은 이날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경기는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혜연 대리의 차분하지만 신중한 손길로 마무리됐다.

오늘 경기의 승자는 45점을 획득한 ‘한’팀! 주인공이 된 한택동 차장과 이은정 노무사가 하이파이브로 승리를 자축하는 가운데, ‘신’팀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경기는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미니볼링을 통해 스트레스와 한파를 말끔히 날리는 기회를 가진 노무법무지원부. 오늘 함께 나눈 추억이 앞으로의 조직생활에 활력이 되길 바라본다.



상호작용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서로의 유대감 및 신뢰도를 높입니다.



도전

흥미를 자극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냅니다.

신길식
부장

“

새로운 이미지로 분위기 쇄신!

딱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다정하고
친근한 사람으로 각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택동
차장

“

몸짱으로 거듭나는 올해를 기대하며!

상반기까지 5kg을 감량하기로 아내와 약속
했는데 꼭 지키고 싶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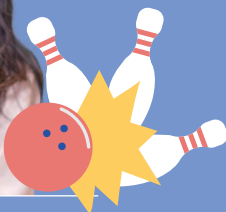
이화운
과장

“

공단 제도 개선에 힘쓰며!

팀에서 보수 제도를 담당합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기존 제도 정비·개편에
힘쓸 예정입니다.

”

김혜연
대리

“

부지런한 2021년을 기대하며!

모든 일에 더 부지런한 태도로 임하고 싶습니다.
작은 게으름까지 타파하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

노무법무지원부 신길식 부장 인터뷰 노무법무지원부를 소개합니다!



❓ 공단에서 노무법무지원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노무법무지원부는 조직 내에서 흥반장(해결사)과 같은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총무국 소속으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심판·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 등 공단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교섭 및 노무 관련 자문 등 노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단의 보수 제도의 개선 등 보수 관리 업무 및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직무 난이도가 높고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부서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 강합니다.

❓ 노무와 법무를 지원하는 팀인 만큼 다양한 고충이 있을 듯합니다.

❗ 노무 업무는 경영진을 대표하여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등 업무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업무의 결과가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입장과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단과 임직원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노·사 화합을 통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 올해 노무법무지원부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올해 노무법무지원부는 “협력적 노사관계 재정립을 통한 노사상생 선도기관 도약”, “전문 법무서비스 지원 강화” 등 3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진단을 통한 협력적 노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등 8대 실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직경쟁력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액세서리 우리가 만들고 유통해나가요



사업자 대상의 액세서리 도매 쇼핑몰을 운영 중인 (주)영그룹컴퍼니. 시작은 단출했다. 당시 17살이던 유다영 대표가 변화가 한판에 간이 매대를 설치해 액세서리를 팔았던 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제는 B2B 사업자로 국내 액세서리 트렌드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영그룹컴퍼니의 흥미진진 발전사를 들어봤다.

공단 상생협력관 참여기업
(주)영그룹컴퍼니 유다영 대표





🎙️ 사업의 시작점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프리마켓 형태로 액세서리 판매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 어릴 때부터 패션, 미용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액세서리를 직접 팔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드라마 속 한 배우가 길거리 좌판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장면을 보면서부터였죠. 막연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도 응원해주신 덕에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마땅히 정보를 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건 제가 찾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작은 접이식 매대를 샀고, 액세서리 도매시장을 찾아 시장조사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을 떼왔는데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어요. 학교수업이 끝나면 당시 변화가였던 현대백화점 앞에서 간이 매대를 펼치고 제품을 진열해서 저녁까지 팔았죠. 초반엔 가짓수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관심을 줬고, 제품도 잘 팔려서 무척 재밌었습니다.

🎙️ 당시만 해도 울산에 프리마켓 문화가 일상적이지 않았죠. 게다가 아직 학생이었고요. 판매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 갑작스레 비 내리는 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액세서리가 망가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매대를 엮거나 하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별

거 없어 보여도 매대를 설치하고 제품을 진열하려면 한 두 시간은 걸려요. 그게 헛수고로 돌아갔으니 속상해서 혼자 운 적도 있었죠. 판매하면서 마음을 다치는 일도 있었어요. 물건을 구매한 지 보름이 넘게 지났는데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거나,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물건부터 먼저 가져가서는 소식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겪었는데 마음은 힘들었을지언정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잘되어야겠다는 생각만 한 것 같아요.

🎙️ 2011년 액세서리 도매몰 ‘도매하우스’를 열면서 판매형태가 B2B 도매사업으로 바뀌었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 졸업 후 제 일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들 액세서리 판매에 관심이 많았는지 여러 가지 정보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전화가 올 정도였어요. 당시 저는 액세서리 진열·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탑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차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부에 진열대와 조명을 설치하고, 외부엔 도색과 스티커 작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되는 게 확연히 보이니까 그런 주문도 들어오더라고요. 실제로 두세 번 정도 그런 일



을 했어요. 직접 엑세서리도 조달했구요. 이런 경험이 쌓이며 시야가 넓어졌고, 본격적으로 B2B 형태의 사업 모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 거래처 분들과 사이가 돈독하다고 들었어요.

🎙️ 그동안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거래처 분들의 도움이 컸어요. 사업을 시작했던 이십 대 초반의 저는 회사운영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해외에서 납품업체를 발굴하게 된 것도 어느 거래처 대표님 덕분이었죠. 도매를 하려면 중국시장을 잘 알아야 한다며 조언해주신 덕에 그때부터 중국 내 제품 공급처에 대한 시장조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 중국 거래처 확보가 회사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나요?

🎙️ 아무래도 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중국에서 확보하면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니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엔 마진이 거의 남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사무실도 2배 이상 커졌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제품군도 훨씬 많아졌으니까 그때의 도전이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 요즘은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 가장 주문이 많은 품목은 여성분들이 올리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 집게핀이에요. 그리고 곱창 머리끈도 만만찮게 인기가 많아요. 둘 다 예전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는 품목이란 게 신기하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딱이란 생각이 들어요.

🎙️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회사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신 적도 있고요.

어떻게 관심을 두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자리를 잡고부터는 주문이 물밀 듯 들어왔어요. 게다가 저희는 도매업체니까 머리끈 한 건만 주





QR코드를 인식해
상생협력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문받아도 이미 몇천 개씩 만들어야 하거든요. 실
내에 앉아서 만들면 되니까 초반에 조금 익숙해
지기만 하면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장애
인분들이나 경력단절 여성처럼 취업이 쉽지 않
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때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
회공헌에 발을 들인 것 같아요. 평소 복지관이나
구청을 통해 기부활동이나 재능기부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일로 얻는 충만감과 나눔을 통해
얻는 충만감은 또 달라서, 앞으로도 열심히 나눈
에 임하고 싶어요.

**🎤 올해로 벌써 사업 10년 차, 중견 사업자로
접어들었어요. 그간을 회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 액세서리 판매에 뛰어들었던 때를 생각하
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싶어요. 좌
판 앞에 앉아 밥을 먹었던 때도 있고, 손이 다 틀
정도로 추웠던 겨울에도 곳곳이 자리를 지켰거
든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지금 사업을 운영하
는 데 정말 큰 힘이 돼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했다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확
신하기 어려웠을 텐데,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마주했던 경험이 쌓인 덕에 제품을 고르는 눈이
생겼거든요. 어려움 속에도 늘 기회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만든 액세서리로 꼭 채운 오프라인
매장을 내는 것이 지금 저의 가장 큰 목표예요. 브
랜드화해서 전국에 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거죠.
지금은 B2B로만 운영하지만, 예전에 그랬듯 현장
의 고객들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관에 참여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 상생협력관 사업이 무엇인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가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생협력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업 제품 등록
(정보인프라 공유)

홍보, 마케팅 지원
(판로 확산)

기업 혁신 성장
지원



기업이 직접
제품을 등록



공단 보유
홍보 채널에 홍보



제품문의 및
투자처 확보 등
혁신기업 경영성과
확대 지원

? 상생협력관을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단 정보 플랫폼 공유/개방

- 기업 관계자가 직접 해당기업 정보를 등록 관리
- 빠르고 정확한 신제품 기업정보 반영 가능

홍보효과 UP!



다시 찾아온 봄

담장 너머로
조용히 봄별이 드리운다

어려운 순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킨
고궁에
어느덧 봄이 찾아와

시린 계절이 언제였냐는 듯
또 다시 웃는다



조선 500년의 숨결을 간직한 '경복궁'

조선전기기에 창건되어 정궁으로 이용된 궁궐. 비록 궁내의 건물이 대부분 사라져 근정전과 경회루를 제외한 많은 전각들이 복원되었지만, 창건 당시 위치 그대로여서 조선왕조 정궁의 면모를 대체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사진은 경복궁 내전인 자경전으로, 대왕대비가 거처했던 대비전이다. 자경전 좌측 담장은 꽃담으로 장식하였고, 뒷마당에는 십장생이 새겨진 굴뚝이 유명하다.

주소: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바이오 테크놀로지, 재난에 맞서는 미래 기술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친환경 전환

대규모 전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우리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이 더욱 주목받게 된 것 역시 사태의 위중함을 방증한다. 지구와 인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이 생명공학기술의 최전선에서는 어떠한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 알아보자.

4차산업과 함께 풍성해지는 레드 바이오

코로나19 팬데믹의 돌파구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며 레드 바이오산업(Red Bio : 의학 생명공학)이 주목받고 있다. '16년 2,020억 달러였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9% 성장했으며, '22년에는 3,27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 역시 연구개발 측면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약 개발에 AI를 접목하는 일이다. 실제로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신약 개발 스타트업에서 구축한 모델 'GENTRL'의 딥러닝 사례를 통해 AI가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이슈는 '3D 바이오프린팅'이다. 이는 3D 프린터로 각막·피부·혈관·장기 등을 생성해 신체에 이식하는 기술로서, 환자 맞춤형 체내



이식물을 제작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대단하다. 고령화 시대에 장기부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인공장기 개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의 융합은 더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오랜 IT강국이자, K바이오의 위상을 자랑하며 BT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활약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린 바이오, 식량주권(食糧主權)을 지키다

그린 바이오(Green Bio : 농업 생명공학)는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생명공학 기술을 더해 기능성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병 저항성 농작물을 만들거나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의 일도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바이오는 미래 식량부족 및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 분야로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상 기후에 대비한 내재해성·내병충성 작물 개발과 디지털 육종기술 기반 종자산업 등이 대표적이며, 곤충 등 다양한 생명 소재를 기저로 한 개발 및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 종자산업,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 등 그린 바이오



5대 유망산업의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우기로 했다.

농업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는 음식을 섭취하고 생활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직결된다. 이는 상당량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그린 바이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이트 바이오로 만드는 플라스틱 zero

플라스틱병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 이런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은 매년 약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에 달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배달 및 택배로 인한 플라스틱 배출량을 증가시켰고, 지구와 인류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화이트 바이오(White Bio : 산업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화이트 바이오란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미생물, 효소 등으로 대체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석유 기반 플라스틱이 아닌 옥수수과 같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 화학, 롯데케미칼 등 국내 화학업계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상용화까지 준비 중이다. 우리는 지금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가진 바이오기술이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으리라 기대되는 만큼, 생명공학 산업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과 동시에 유능한 인재의 진출이 필요한 때다.

Bioindustry 관련 직업 & 자격증 돋보기

‘오가노이드(organoid)가 현실로’ 바이오3D프린팅 전문가

MRI·CT 등에서 얻은 정보를 3D프린터로 추출하고, 피부·관절·장기 등 다양한 신체 대체 조직을 출력하는 전문가다. 의료의 기본인 인체해부학적 지식과 3D프린팅 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캐드 및 3D프린팅 전문 업체 등에서 일한다.

❶ 관련 자격

3D프린터운용기능사 : 제품스캐닝, 디자인 및 3D 모델링, SW 및 HW 설정, 제품 출력 후 후가공 등 3D프린팅 관련 전반적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

‘빈곤 위기를 해결할 열쇠’ 미래식량 전문가

식량 문제에 대비하여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 새로운 작물이나 음식을 개발한다.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배양육, 식용곤충 등 미래 대체식량 식품소재를 대상으로 생체 흡수율 및 영양소 보존율을 높이는 등 효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한다.

❶ 관련 자격

종자기사 :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활한 작물의 육종, 채종과 종자 검사, 관리 업무를 통하여 우수한 작물 품종을 개발하는 자격

‘차세대 K바이오 주인공’ 바이오 의약품 개발자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생물체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전문가다. 동물실험, 세포배양, 줄기세포 활용, 유전자 조작 등 전문적인 실험과 연구를 수행한다. 병원, 연구소, 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에서 일한다.

❶ 관련 자격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 생물체를 이용한 균주 관리, 배지조제, 멸균, 배양,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범용 및 특수바이오화학제품 등을 제조하는 자격

‘바이오자원을 지켜라’ 생태 복원 전문가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로 부각되는 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그에 걸맞은 환경을 복원한다. 생태계 영향 평가 및 보전·복원 사업, 생태계 훼손 저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환경생태 복원전문업체, 생태계 위해성 평가기관, 조경 전문 업체 등에서 일한다.

❶ 관련 자격

자연생태복원기사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며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위해성 등을 평가하는 자격



우리, 책 읽을까요?

집콕족을 위한 추천 도서 5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언택트 생활에 책 읽기는 더없이 좋은 취미가 아닐까. 어떤 책을 읽을까 망설이고 있는 당신에게, 지식과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분야별 도서 다섯 권을 소개한다.



에리카 라인 지음,
갤리온, 2020

정리가 필요한 당신에게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온 나날들... 코로나19로 잠시 멈춰진 세상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그곳엔 너무 많은 사람과 물건,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잡동사니를 걷어내자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가 생겼다고 고백한다. 집·업무·가족·소비·시간·인간관계에 걸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전략까지 담겨있는 초보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실용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추구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한다.



김영하 지음,
문학동네, 2019

어디론가 떠나기를 바라는 당신에게 「여행의 이유」

자유로운 여행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한다. 이럴 땐 여행의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이 어떨까. 저자는 자신이 겪은 여행에서의 경험과 그에 대한 사유를 담은 아홉 개의 이야기를 이 책에 엮었다. 저자가 여행의 이유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과정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모두 지구에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자들’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태도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여행이 그리워 무심코 펼쳤다가, 인생을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다.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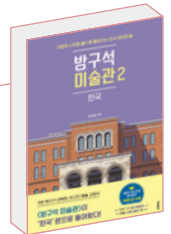
코로나 블루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거리의 치유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공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임을 몸소 경험했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아픈 이유를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공감받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적정심리학’이란 사람의 마음과 존재의 본질을 움직여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심리학이다. 지금, ‘당신이 옳다’라고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한다.



정혜신 지음,
해냄, 2018

예술에 목마른 당신에게 『방구석 미술관 2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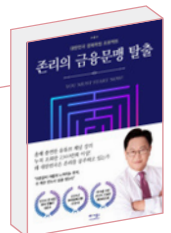
멀게만 느껴지던 미술 작품을 내 방구석에서 감상한다는 콘셉트로, 미술 교양에 새로운 지평을 연 방구석 미술관이 이번엔 한국 편으로 돌아왔다. 저자는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10인을 방구석으로 초대해, 그들의 삶과 작품에 숨겨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한다. 누구나 가볍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미술 입문서로, 낯설게만 느껴지던 한국미술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책 속 QR코드를 활용하면 저자의 팟캐스트에 연결돼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도 있다. 그간 코로나19로 쌓여온 예술에 대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기회다.



조원재 지음,
블랙피쉬, 2020

이 시기를 기회로 삼고 싶은 당신에게 『존리의 금융문맹 탈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만큼 개인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스스로를 ‘금융전도사’라고 말하는 저자는 주식 투자에 대한 탁월한 철학과 방법론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진행했던 다양한 강연 내용을 모아 정리하고, 청중에게 받은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금융문맹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춰 금융 공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상세히 알려준다. 투자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당신에게 추천한다.



존리 지음,
베가박스, 2020

④ 스스로 행하다 / 성공! 해외취업

구글과 말레이시아 취업이 나에게 준 선물, 좋은 사람들과 커리어

* 2020년도 성공 해외취업 수기를 전합니다.
지면 관계상 실제 수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 전합니다.

조금은 독특한 나의 해외진출 Story, ‘스타트업 젊은 CEO에서 Google 직원으로?’

23살, 다소 어린 나이에 유기견을 후원하는 사회적 패션 브랜드 DMF를 창업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투자도 받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도 받았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은 녹록치 않았다. 마침 월드잡플러스에서 구글 광고 지원팀의 해외취업 공고를 보게 되었고 운 좋게 구글 광고 지원팀에 합격했다. 회사의 팀원들과 창업을 응원해주던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굳은 결심과 응원으로 2019년 10월, 24살의 나이에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입사가 쉽지만은 않았다. 원어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쓰기, 읽기 문제가 쏟아졌고 마지막엔 하나의 상황을 영

어로 설명하고 그 내용으로 답을 찾는 수학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통과했지만, 문과 출신 예술대학교를 나온 나에게 수학 시험은 난관이었다. 이후 실무 팀장님과 면접 또한 마케팅과 광고를 전공하지 않았던 내게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열정적인 모습 때문인지 계속해서 시간을 주셨고, 결과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2~3회 심층 면접을 본 결과 내 생일에 합격 소식을 받았다.

2020년도 탐 퍼포먼스(이달의 사원) 2관왕 선정

말레이시아에 도착하자마자 기쁨은 잠시 대만,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글로벌 동기들과 함께 한 달 간 영어로 트레이닝을 받은 후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 근무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달간 실제 구글 광고에 대한 지식과 업무에 필요한 스킬을 갖추어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와 동기들은 모두 합격하여 좋은 성과를 내며 일했다. 최종 합격부터 구글에서의 경험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다. 구글 광고 지원팀에 배치되어 구글 내부 정책과 기술을 숙지한 구글 광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또,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사내에서 가장 높은 KPI를 기록해 탑 퍼포먼스(이달의 사원)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가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힘들 때는 동료들과 룸메이트 언니의 응원과 지지로 이겨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곁에 있었기에 시너지 효과를 얻으며, 다시 한 번 더 이달의 사원으로 선정되어 2관왕이 되었다.

해외에서의 커리어와 좋은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이어오다 현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었을 때는 친한 동기들과 정글에 놀러가 오지 탐험도 하고 말레이시아의 섬을 여행하기도 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아 유튜브(방구석 그림여행)를 시작했고, 해외에서의 커리어와 좋은 사람들과 나의 일상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하게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왔다. 댓글,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3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했고, 내가 도움을 드린 분이 올해 11월, 해외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 계기로 경험과 노하우(해외취업, 구글 광고)를 많은 분들께 전수하는 강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주말, 팀 리더에게서 연락이 왔다. 업무 중 사고를 친 것이 아닌지 걱정했지만, 우편을 보냈으니 확인해보라는 메시지였다. 우편물을 열어보니 작은 선물과 정성 담긴 자필의 감사 편지가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팀 내 최고 KPI를 달성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이었다. 첫 해외취업에서 팀 리더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은 뿌듯함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NO.1 퍼포먼스 마케터를 넘어, 빅데이터를 손에 쥔 세계적인 퍼포먼스 마케터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구글 영업팀으로의 입사 제안을 받기도 했고,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지만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 '퍼포먼스 마케터'가 되는 것이 나의 1차 목표이다. 먼 훗날 한국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NO.1 퍼포먼스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학부 시절 전공(패션, 경영)과는 연관이 없는 파이썬, C+ 등 IT 업계의 어려운 언어와 코딩을 공부해야 하지만,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과 경쟁력 있는 퍼포먼스 마케터로 거듭나기 위해 이 어려운 공부 또한 놓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20대 후반에는 국내 혹은 해외에서 빅데이터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취득하고 싶은 꿈이 있다. 월드잡플러스 경험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 퍼포먼스 마케터로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다.

에필로그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해외취업을 위해서는 단단한 마음과 흔들림 없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코로나 이후 어떤 형태로 적응할 것인지가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힘든 시기임에도 해외취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값진 경험과 추억, 커리어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플러스에 감사드린다.



‘백신 여권’으로 자유로운 여행 가능해질까

세계 각국,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수단 개발에 나서다



.....

지난 1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휘청거렸다. 그 가운데서도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발생국들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이를 자유로운 경제생활에 활용하려는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에 대한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뉴스 속 경제 이슈와 최신 고용 동향을 다루는 ‘고용브리핑 365’에서 백신 여권에 대해 알아본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경은 문을 닫았고, 사실상 자유로운 여행은 중단되었다. 따라서 여행업계의 피해는 볼 보듯 뻔한 일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관광업계 피해액은 14조 1천억 원으로 그 가운데 여행업의 피해 규모는 6조 4천억 원으로 가장 컸다. 관련 업계에 종사해 온 수많은 노동자가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국내 여행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형 여행사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의 무급 휴직을 연장했다. 국내 여행업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여행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1년간 무려 951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189개 업체가 휴업 신고를 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대규모 금융지원책을 내놓았다. 관광기금에서 총 6,940억 원을 마련해 올 상반기에만 예산의 70%를 선제적으로 시중에 공

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의 상황을 상상한다면,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관광 산업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산업 전반을 살핀 실질적이고 섬세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언젠가 떠날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백신 여권'

한편, 그동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백신 접종은 곧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백신 여권이다. 백신 여권이란 타국에 입국하거나 공연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본인의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다. 기술의 핵심은 백신 여권 업체가 의료기관에서 전달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 및 백신 접종 정보를 QR코드에 담아 항공사 등에서 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백신 여권을 통해 사람들이 이

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머지않아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으로 여행업계의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백신 여권의 도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곳이 바로 항공업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여권인 트래블 패스를 1분기 내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접종 관리와 증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 중 스웨덴과 덴마크 등이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그리스와 스페인 등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마친 자 국민에게 녹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백신 여권 출시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부는 현재 입학이나 취업, 출국 등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도입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TV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직업방송매체부(052-714-8295)로 문의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 투명한 윤리경영이 경쟁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연결되며 실감나게 변화되기 시작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인공지능 에브리웨어가 시작된다. 바야흐로 인류 역사에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인류의 삶에 스며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이미 스마트폰과 가전, 기계,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보건,

의료, 국방, 금융, 복지, 교육, 보안, 전자정부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 분야에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인공지능은 언론, 문학, 영화, 광고, 음악, 그림 등 인류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창작물로 인간과 겨루고 있다.

2021년부터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다. 현재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활용하듯이 2021년부터 미래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기업 경영과 우리 일상의 핵심이자 기본 역량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지수인 AIQ가 개발되어 기관 및 기업과 개인의 역량 지표로 대두될 수도 있다.

2021년부터 인공지능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할 만큼 인공지능의 중요도, 영향력과 활용이 확대될 것이며 인터넷이 지식정보사회, 스마트가 지능정보사회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창의지혜사회를 도래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일상 라이프, 워크 라이프, 비즈니스 라이프, 레저 라이프, 문화 라이프, 미디어 라이프, 커리어 라이프, 교육 라이프, 헬스 라이프, 커뮤니케이션 라이프가 더욱 똑똑해지고 인간의 창의와 지혜가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한편, 2021년부터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국가 모두 인공지능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이다. 두 국가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와 국민 공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모든 곳에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자타가 공인한 IT 최강국으로 중국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은 어느덧 중국에 추월당했고 이제 중국을 선망하는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퍼스트로 정부 정책, 기업 전략, 학계 연구 방향을 정하고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으로 삼고 전 국민이 동참하여 인공지능 최강국의 대열에 올라가야 한다. 학계 차원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미래학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포럼'을 출범시켰고 대한민국의 대표 인공지능과 미래학 석학 및 전문가 200여 명이 포럼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미래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인공지

능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도록 전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지고 강화된다. 인공지능의 접목으로 신용평가, 상품 추천 및 가격 결정, 채용 면접, 인사고과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국가적으로도 이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이 기관 및 기업의 조직 운영 및 인사 관리, 회계 및 재무관리, 대내외 업무 시스템 등 경영 전반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투명 경영과 공정 경영은 모든 조직 경영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경영이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HRDKorea MAGAZINE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EWS

2021
MARCH
vol. 297

03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과 물품 전달

공단은 2월 2일, 설 명절을 맞아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중구)과 함월노인복지관(울산 중구)을 방문해 총 400만 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8일에는 도솔천노인요양원(울산 울주군)을 방문해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적립해 자매결연 맺은 사회복지시설들에 기부해오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구 반구시장과 자매결연 맺고 후원 물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또한, 공단은 2020년 'HRDK나눔미'라는 사회공헌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소외계층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사랑나눔 일일챗집 개최

2월 9일,공단 본부 1층 로비에서는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사랑나눔 일일챗집'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기부금을 200만 원 마련했으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코로나19 지역 위기계층에 일일챗집 수익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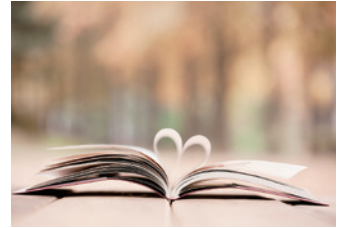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2월 8일 울산 본부 집무실에서 ‘어린이교통 안전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챌린지이다. 이날 김동만 이사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공단-ETS-YBM, 월드잡플러스x 토익스피킹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

공단과 ETS Korea, YBM은 ‘월드잡플러스x토익스피킹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월드잡플러스에 가입하고 유효한 토익스피킹 점수를 보유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개인 또는 팀(2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뉴노멀 시대의 글로벌 경력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주제로 3분 이내 발표 영상과 영문원고를 접수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ETS Korea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우수자 7명과 우수팀 7팀을 선정하여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영상구성 방법, 심사기준 등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대회 접수페이지(worldjob.or.kr/tos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발간

공단은 2월 15일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0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를 통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12편을 담고 있다. 또 2021년도 국가자격 시행 안내 및 국가기술자격 소개,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 이용법 등 수험자에게 유용한 정보도 담았다. 사례집은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을 통해 수험자 및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입상자를 포함해 정부 부처 및 교육기관 등 310곳에 책자 형태로 배포한다.

독자이야기

당신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감동적이거나 모두를 웃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섯 분을 추천해 온라인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드립니다.

2021년
2월호 당첨자



전경미

경영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데,
1년 동안 바쁜 시간 쪼개면서 절반 목표
지점 도달했습니다. 졸업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우익

빵을 만들어 보고자 학원에 다니는데 희망이
보이네요. 좀 더 일찍 도전할 걸 아쉬움이
남지만, 자신감을 갖고 새로 시작합니다.



한상대

멋진 삶. 성취감과 기쁨이 두 배. 무한
경쟁시대 나를 살리는 버팀목. 이제는
일과 배움 함께 합니다.



황득규

일학습병행의 과정은 힘들어도 이를 통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너무나 흐뭇하고
성취감에 만족하게 되리라 봅니다.



김남일

(일학습병행이) 자리 잡기 위해서, 학교든
기업이든 새로운 인식 전환으로 좀 더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응원합니다.

HRD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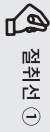
vol. 29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단 QR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HRDKorea** 어떠셨나요?

엽서, 이메일(kyj626200@hrdkorea.or.kr/
이름, 연락처 기재)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 보내주세요.
당첨자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안내해드립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수집 및 이용 목적 : 엽서 당첨자 공지 및 상품 발송
- 수집항목 : 이름,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동의 철회 시까지, 수신 거부 시 즉시 삭제
-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편엽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발송유효기간
2016. 5. 1 ~ 9999. 4. 30울산우체국
승인 제40219호

HRDKorea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실
HRD KOREA 담당자 앞 T. 052-714-8195

4 4 5 3 8

○ 이곳에 구멍을 뚫어서 벽에 걸어주세요

HRD Calender

03

2021년 3월 국가자격시험 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 기능장 제69회 실기시험 원서접수(3.2~3.5)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산업기사)(3.2~3.14) ▪ 기능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3.2~3.5)	3	4 ▪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추가 원서접수(3.4~3.5)	5	6
7 ▪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	8 ▪ 제1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원서접수(3.8~3.12) ▪ 기술사 제123회 면접시험 원서접수(3.8~3.11)	9	10	11 ▪ 제19회 경매사 1차 추가 원서접수 (3.11~3.12) ▪ 제38회 관세사 1,2차 추가 원서접수 (3.11~3.12)	12	13 ▪ 제11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차 시험
14	15	16	17	18	19	20 ▪ 제19회 경매사 1차 시험 ▪ 제38회 관세사 1차 시험
21	22 ▪ 제21회 소방시설관리사 1차 원서접수(3.22~3.26)	23	24	25 ▪ 제19회 가맹거래사 1차 추가 원서접수 (3.25~3.26) ▪ 제36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1차 추가 원서접수 (3.25~3.26)	26	27
28	29 ▪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3.29~4.2)	30 ▪ 기능사 제2회 필기시험 원서접수(3.30~4.2)	31 ▪ 기사 제1회 실기시험 (기사-서비스) 원서접수 (3.31~4.5, 휴일 제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절취선 ②

이번 호에 실린 기사 중 가장 만족스럽고 유익했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앞으로 <HRD KORE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사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이번 호 독자이야기 부분의 의견 또는 경험담을 써주세요.(3줄 이내)



절취선 ②





능력티켓으로 HRD 여행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징검다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어진 하나의 길이 됩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새로운 얼굴,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언제나 든든한 여러분의
HRD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전 국민 평생교육과 능력개발의 요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일궈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합니다.